

문화관광·첨단산업 집중육성 '새시대 선도'



경북도는 문화의 새시기를 선도하기 위한 문화·관광산업 진흥에 중점을 둔다는 방침에 따라 2000년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성공적 개최를 비롯 경주·안동에 새천년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도 적극 펼치기로 했다.

이의근 지사 새해 설계

21세기 대비 장기발전계획 수립



경북도는 96년 1월 전국에서 가장 먼저 21세기를 대비한 장기발전계획을 도민들 앞에 제시하고 미래지향적인 도정을 펼쳐왔다.

특히 98경주세계문화엑스포의 성공적 개최와 유교문화권 종합개발 계획의 수립 등 문화도정 부문에 역점을 둔 결과 성과를 거두었으며 97한국농업협회 자치경영대상 등 객관적으로 앞서가는 자치단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주도하겠다.

-농·축·수산업 유통 등 농어업 기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상.

▲새천년 농업발전 전략으로 미래농업을 이끌어갈 정예농업인력 육성과 신지식 농업육성 친환경 농업, 신유통체계 구축 및 수출농업 육성에 중점을 지원하겠다. 산지유통시설과 4대권역별 유통센터와 농산물 가공사업 등을 지원하고 어업질서 재편에 따른 신어업체제 구축에도 힘쓸 계획이다.

▲동해안 종합개발계획을 위한 최종 공청회를 가지는 등 관심을 갖고 있는 가운데 2000년 동해중부선 건설사업이 내년부터 추진된다. 향후 대책과 기대효과.

▲동해중부선철도 부설사업은 기본 설계비 30억원을 확보했으며 정부당

새천년을 시작하는 2000년! 경북도는 새로운 시대의 여건과 패러다임의 변화를 예측해 마련한 경북새천년 만들기 구상을 구체화하는데 행정력을 집중시키기로 했다.

특히 문화의 새시기를 선도하기 위한 문화·관광산업진흥에 중점을 둔다는 방침에 따라 2000년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성공적 개최를 비롯 경주·안동에 새천년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도 적극 펼치기로 했다.

생산가격 보장제 실시 등으로 농어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킨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경제난으로 주춤한 SOC 확충 사업으로 중앙고속도로 4차로를 완공하는 한편 대구-부산 육포-성산 고속도로 확장공사에 착수키로 하는 등 지역경쟁력 강화 기반구축에 주력하기로 했다.

울진공항 건설과 포항-예천공항 확장, 신항만 건설사업도 본격 추진키로 했으며 경북고속철도 건설을 전구간에 걸쳐 추진키로 하고 우선적으로 대구-경주간 용지보상에 나서기로 했다.

동해중부선 철도부설 기본조사사업 등 입체적 광역교통망 구축과 북부지역 개

도내에 3개 건립키로 했다.

생활보호대상과 주택보수 부자가정 자립학교를 운영하면서 불우아동 컴퓨터를 구입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해 놓고 있다.

이같은 2000년 경북도정 구상은 균형, 조화, 자연친화, 통합, 연계의 신개발 개념에 기초하고 있는 경북 새천년 만들기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특히 경북도는 기존의 단위사업별로 나열되어 있던 각종 개발 계획을 유기적으로 통합해놓은 새천년 만들기 프로젝트를 체계적으로 운영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미 2000년 중앙예산을 99년보다

중규모용수개발 및 수리시설개보수 사업에 835억원을 투자하는 것을 비롯 정부 신규사업 억제방침에도 불구하고 북부지역 유교문화권 관광조사업 자문화 사업에 필요한 예산 165억원을 확보했다.

또 전국 포괄사업비로 확정된 고속도로 사업비로 중앙고속도로 7개 노선 등에 5천714억원을 투자하게 되며 북부지역 개발촉진지구개발과 낙동강수계지수 보강사업 일반하천개보수사업과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등 경북도가 추진중인 2000년 프로젝트에 상당수의 국비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의근경북도지사는 '2000년은 경북

도 23개 전시군에 밀레니엄 기념숲을 조성하는 한편 경북문화산업비전 2000 수립, 문화산업 육성기반 조성, 2001 국제 유교문화 행사의 차질없는 준비 작업도 새천년 경북의 주요도정이다.

동시에 북부지역 유교문화권 종합개발사업 본격 추진과 대가야 역사테마공원 조성 등 가야문화권 종합개발로 경북 3대 문화권과 산업 관광이 조화를 이루는 복합관광의 메카로 만들기로 했다.

이와함께 기술혁신을 통한 경제 제도와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역산업 진흥 계획 및 과학기술진흥 5개년 계획 수립과 지식기반 경제구조 개편방향을 마련해 놓고 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3천 600억원을 확보 무역관광업까지 지원키로 했으며 경북신용보증조합 설립,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 등으로 경제살리기 핵심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구상도 세웠다.

또 부품 소재분야 차세대 기술개발 지원을 위한 기술개발혁신센터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포함해 경산에 경북테크노파크를 조성하고 포항테크노파크와 구미·포항 소프트웨어 지원센터 조성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경북도는 동시에 WTO 뉴라운드 협상과 기업환경 변화 등에 대응하는 농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획기적인 방침들을 수립하고 실천단계에 들어간다.

농업용수로 현대화 10개년 계획을 수립 추진하는 한편 고품질 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실천농가들에 대해서는 직접지불제를 실시하고 친환경농업 종합지원단을 구성 운영키로 했다.

또 친환경농업지구 조성 및 농수산물 수출단지 40개를 육성키로 하는 것을 비롯 축산진흥을 위한 축산전업경영체 육성 지원, 경북형 한우 표준모델 개발, 송아지

세계시장 맞설 경쟁력 확보

■ 문화관광

세계문화엑스포 성공적 개최

유교·가야 문화권 종합 개발

발촉지구 개발을 가속화하고 구미제4 국가산업단지와 왜관 제2산업단지 및 포항테크노파크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도 추진키로 했다.

해양산업 등 자연자원의 보전과 체계적 개발을 위해 환경시책을 대폭 강화하기로 하고 환경기초시설 30개소와 쓰레기처리 시설 9개소를 신설하는 계획도 수립했다. 동해안을 21세기 해양산업의 관광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경북해양21을 통한 신바다정책을 이끌기로 했으며 경북산림 비전 21을 수립, 산림의 자원화를 꿈꾸고 있다.

특히 서민층 생활보호에 역점을 두고 복지분야 예산을 99년 대비 38%나 증가시킨 2천888억원을 투자키로 하는 등 경북도정의 새로운 모습이다.

경북도는 이 정책을 통해 1년내 의료보험 혜택을 부여하고 경로연금 지급대상과 장애인 범위 확대 등 선진국형 복지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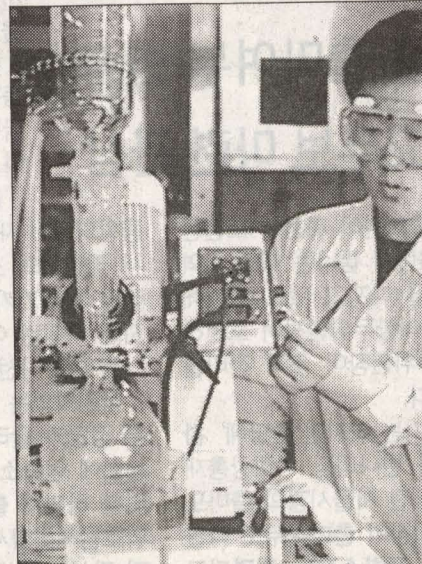
노인복지타운과 노인회관 치매요양원 시설을 확충하고 노인복지 도우미제 및 어르신 봉사자원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여성의 사회참여를 적극 지원하고 여성성보호 교육과 여성자원활동 등 저취제를 운영하는 한편 2000년에 여성화관을

■ 과학기술

포항·경산 테크노파크 조성

중소·소프트웨어센터 건립



경북도는 기술혁신을 통한 경제 제도와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과학기술진흥 5개년 계획 수립과 지식기반 경제구조 개편방향을 마련해 놓고 있다.

18.3% 증가된 3조1천348억원을 확보하고 포항영일만신항건설에 606억원, 포항·예천·울진공항건설 또는 확장사업에 197억원을 투자키로 했으며 영연담 도수로 건설사업에도 638억원을 배정해 놓고 있다.

■ 농·축산업

친환경농업지원단 구성운영

수출단지·전업경영체 육성

새천년 만들기 구상에 따라 최종 확정되는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예산을 배정키로 하는 등의 장기발전계획을 마련중에 있으며 특히 많은 국비가 확보된 만큼 살기 좋은 경북 건설 계획은 차질없이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할 것인가.

▲경북새천년 만들기는 총 62조5천 716억원이 투입되는데 연평균 5조6천 883억원이 소요되는 만큼 99년 기준으로 불태 시군을 포함 5조원을 상회하고 있다.

따라서 매년 5% 정도의 경제성장률을 감안하고 민자유치 등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돼 재원 확보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 문화·관광산업에 중점육성 대책과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준비상황은.

▲경주 안동에 새천년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고 밀레니엄 기념숲을 전시군에 만들기로 했다. 물론 경북문화산업비전 2000을 수립 기반조성에 주력하겠다. 대가야 역사테마공원 조성과 가야문화권 종합개발도 추진하기로 하는 등 3대 문화권과 산업관광이 조화를 이룬 복합관광 메카 육성방침도 있다.

2000문화엑스포 준비는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장기적인 계획으로 부지매입도 추진중이다.

-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SOC 확충 계획과 경제활성화 방안과 실행대책은.

▲포항-김천간 고속도로를 비롯 7개 고속도로와 632개 간선도로 확·포장사업들을 기초로 각종 SOC 확충 방안을 마련해 놓고 있으며 경부고속철도 건설 전구간을 추진하게 되는 데 대구-경주구간의 용지보상에 들어간다. 동해중부선철도 부설 기본조사사업 등 입체적 광역교통망을 구축할 것이다. 또 북부지역 개발촉진지구 개발을 가속화하고 구미 제4국가산업단지 왜관 제2산업단지 및 포항테크노파크 지방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키로 하는 등으로

국의 인식으로 잔여 예산도 조기확보되리라고 본다. 장기적으로 울진-봉화간을 연결하는 경북순환철도망을 구축 도민들이 고속 광역 교통 혜택을 받도록 하겠다. 따라서 동해중부선 철도부설은 남북간의 교역 확대에 대비할 수 있고 산업 물동량의 원활한 수송으로 주민들의 소득증대는 물론 지역균형개발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 현재 진행중인 어선감축사업의 향후 추진계획과 종합적인 어민지원 계획은.

▲연내에 피해어민 보상문제를 둘러싸고 불만이 있으나 일부 해소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연안어장 목장화 사업을 통해 기르는 어업으로 전환하고 해양관광개발사업을 새로운 소득원으로 시행한다.

- 이지사에서는 전국 시·도지사를 대표하여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추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앞으로 지방자치에 필요한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이 어떤 방향에서 어느정도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와 향후 활동 계획은.

▲구체적인 계획보다는 앞으로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민간전문가들이 각자의 이해관계를 떠나 지방자치 발전이라는 거시적 시각으로 지방이양의 범위와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광역단체를 대표하는 지방이양추진위원으로서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

【한국선기자】

동양의 라스베가스
마카오 - 홍콩 - 심천
취향기념특별할인
3박4일<매주 월요일출> 699,000원
4박5일<매주 목요일출> 729,000원
● 10명 이상 단체출발요금 (서울출발/서울도착)
공항세, 출국세 불포함
여행사 보험 (1억원)포함

제주도 보다 가까운 해외여행
대마도
2박3일 - 390,000원
<부산출발/부산도착>
▶ 비수기 특별할인, 단체수대 ◀
출발일
1월 - 11, 17, 18, 24, 26, 31
2월 - 2, 7, 14, 16, 21, 23, 28
3월 - 1, 6, 8, 13, 15, 22, 27, 29

신혼여행
제주도, 울릉도
방콕 - 파타야
방콕 - 푸켓
상가폴 - 빈탄
시드니 - 골드코스트
괌 - 싸이판
하와이
- 전문 여행사와 상의 하십시오 -

그리운 산하
금강산
2인 1실 - 660,000원
※ 4인 1실 - 577,500원
■ 매일출발 - 단체, 신혼 특별우대
- 영일보통보험 5만원 가입업체 -
AIR MACAU 澳門航空
DAE-A TRAVEL (주)대아이여행사
예약문의: (0562)282-0011